

지역 매 아리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향상 강화를 위하여 지난 3일 교육을 실시했다.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자율방재단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박준배 김제시장,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자율방재단의 역할과 임무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므로써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재난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김제경찰서 강남규 경위의 '재난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강의에 이어 김제소방서 이배근 소방교의 '화재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순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민 187명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이다. 자율방재단은 태풍·호우·지진·폭염 등의 자연재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예방활동과 무더위쉼터 점검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현장에 투입돼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재난 안전도우미 역할도 병행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하면, 소외이웃 위한 김장나눔

김제시 청하면(면장 소연숙) 주민자치위원(위원장 오태석)과 사회단체를 주축으로 지난 3일 청하면 문화회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2018년 청하면 사랑울림 김장(깎두기)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김장(깎두기) 나누기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김장을 대비해 직접 심고 수확한 무로 주민자치위원 및 각 사회단체회원들의 따뜻한 손길로 깎두기를 담가 더 의미가 깊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관내 경로당 및 독거노인, 장애인,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140세대에게 깎두기를 전달했다.

이날 오태석 주민자치위원장은 "사랑의 깎두기 나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주민자치위원 및 각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지원과 연계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모래놀이' 아동정서발달 기여

완주군 드림스타트, 모래놀이치료 결과보고회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과 생각·감정 표현에 도움

완주군 드림스타트가 모래놀이 치료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4일 마음나무 심리상담센터(원장 김옥엽)와 대상아동 부모,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래놀이 치료 결

과보고회를 가졌다. 모래놀이는 모래상자 안에서 인형 등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여 아동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내면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심리치료 방법이다.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4일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와 대상아동 부모,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래놀이 치료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드림스타트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아동 6명을 대상으로 모래놀이 치료를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리고 변화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모가 참여하는 중간·결과보고회를 통해 양육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김옥엽 원장은 "대상아동들은 치료 초기에 보통 불안감이 높았고,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였다"며 "지금은 정서적 안정감을 찾았고, 이해력 및 책임감, 타인에 대한 친밀감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변화는 치료에 대한 피드백이 대상 가정 및 드림스타트에서 적절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은 "모래놀이 치료가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발달에 기여해 아동들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2박3일간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민 35명을 대상으로 4기 귀농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완주군, 도시민 귀농학교 실시

친환경 농장·마을공동체 등 견학

완주군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체험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군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2박3일간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민 35명을 대상으로 4기 귀농 체험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친환경 농장을 방문하고 마을공동체, 거점농민가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등 완주군

의 선도적인 농업농촌 정책을 견학했다.

교육생들은 완주군의 중점적인 로컬푸드와 먹거리에 질문을 쏟아내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선배 귀농인들의 생생한 귀농창업 사례를 직접 듣는 시간에는 귀농계획을 현실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

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귀농귀촌 1번지에 걸맞게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올 한해 도시민·기업체를 대상으로 팜투어 등 16회 300명, 박람회와 상담홍보전 9회 400여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추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여성회관에서는 2019년도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홈페이지, 한식조리사 등 36개 과목 강사를 공개모집한다.

김제시 여성회관 2019년도 강사 공개모집

6~14일까지 접수...홈패션, 한식조리사 등 36개 과목

김제시 여성회관(과장 심미란)에서는 열정과 전문성을 겸비한 역량있는 강사를 선발하기 위해 2019년도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공개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홈패션, 한식조리사, 제과제빵 등 36개 과목으로 원서접수는 12월 6일부터 14일까지이며, 지원신청서, 강의계획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김제시 여성회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

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심미란 여성가족과장은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2019년도 여성회관 강사 공개모집에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많은 인재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만경읍,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해단식 개최

김제시 만경읍(읍장 최병인)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던 노인일자리사업이 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읍사무소 2층에서 참여했던 어르신 22여명을 모시고 해단식을 갖고 참여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보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장장 10개월간 시행되어 만경읍사무소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공공시설 봉사과 독거노

인 어르신들의 빨래봉사로 개인위생 및 쾌적한 생활을 위한 실버빨래방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조성과 아름다운 만경읍 가꾸기 사업에 기여하였다.

최병인 읍장은 "그동안 아무사고 없이 노인일자리사업을 마무리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